

오륙도 칼럼



장광표

북한 김정일은 천안함과 연평도 주민에 대한 무력도발을 자행했으면서도 아직까지 조금이라도 그 무모함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식량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는 우리국민들을 향해 대포문을 열어 놓고 언제든지 무력도발을 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36년간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지

배하면서 우리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송두리째 말살하려했던 일본도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내용을 그들의 중학교 교과서에 실어 국제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이웃나라 중국은 북한이 저질렀던 연평도 주민과 천안함의 무력도발에 대하여 한마디의 올바른 비판이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과의 외교적 친분을 더욱 더 돈독하게 과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변 국가들의 정세 속에서 북한의 적화야욕 무력도발의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만 가고 있는 6월이다.

올해 6월은 어느 해 보다 나라위

국가유공자 희생정신 기리자

해 품 바치신 국가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깊이 새기고 본 받아야 한다. 북한의 김정일은 우리의 나라사랑 정신이 회백해지기를 기다리며 그 틈새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언제 또 다시 자유롭고 평화로운 연평도 주민들과 최전방에서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우리의 젊은 장병들을 향해 어처구니없는 무력도발을 감행할지 모른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은 또 다시 당하지 않도록 하나같이 단결하여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정신 신앙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보훈처와 6·25전쟁 국가유공자회 등 보훈단체에서 추진하는 안보의식교육을 더욱 더 강화하여

확고한 안보의식을 다져야한다. 북한의 적화야욕 노립수를 잘 모르고 조금이라도 동조하는 소수의견에 귀 기울이거나 이들의 선동에 흔들려서는 절대 안된다.

6·25전쟁 이후 61년 동안 선량한 우리 국민들에게 저지른 북한의 무력도발 횟수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북한의 만행을 속속들이 잘 알아 차린다면 정말 그들의 야비한 만행을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평화유지를 위한 군사협정을 하고 이산가족 상봉, 식량지원 등과 같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다른 한편에서는 적화야욕을 한시라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해야한다.

지난 날과 같이 일부 몰지각하게 북한의 무력도발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다면 아만적인 무력도발을 부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전부적 자유를 만끽할 수 없는 세계유일의 공산주의 일인독재체제를 신봉하지 않는 이상 북한 김정일의 적화야욕을 철저히 분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력의 성장노력은 물론 국방력과 한·미동맹을 한층 더 공고히 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청소년과 젊은 여성들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의 확고한 안보의식이다. 이를 다지기 위하여 나라사랑 정신협약을 위한 범국민적 교육에 적극 동참하고 국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나라사랑의 상징적인 조형물이나 기념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부산시민공원이나 중앙광장 또는 UN평화기념관과 같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햇불과 같은 조형물을 설치하여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후대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자유와 평화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 그토록 악착같이 공산주의 체제와 싸워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1년전 6·25전쟁으로 인하여 약140여만 명의 사망자와 260여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민족상잔의 비극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6월의 하늘아래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더 누리기 위해서 나라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한가지라도 더 실천해 보자.

부산지방보훈청 총무과장

신선대

<185>

채 규중



선운의 1000자 지혜

장인정신과 도리

사람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인 도리(道理)나 특별한 재주를 습득하고 깨우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제아무리 말을 잘 하는 달변가라도 그것을 설명할 수 없으며, 제아무리 훌륭한 문장가라도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참된 도리를 깨우치려면 남에 의해서가 아닌 자기 스스로 부단한 노력으로 연구하고 깨달아서 얻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책을 읽는다는 것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한 사람의 진정하고 완전한 도리는 아닐 것이다.

보통, 재주는 타고 난다고 말한다. 그런데 재주는 태어날 때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수십 년 또는 한 평생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겐 신이 주는 보상이며 특별한 선물인 것이다. 제(齊)나라 제후인 환공(桓公)이 책을 읽고 있는데 수레바퀴를 만드는 목수 윤권(輪扁)이 무손 책을 읽고 있느냐고 물었다. 환공이 옛 성인의 말씀을 기록해둔 책이라고 하자, 윤권은 그 성인이 아직도 살아 있느냐고 다시 물었다. 이미 죽었다고 대답하니 '임금님께서는 옛사람의 겹집을 읽고 계시군요.' 했다.

환공은 수레바퀴를 만드는 목

수 따위가 겹집을 한다고 화를 벌컥 내었다.

"정말 무엄하구나. 말해 보아라. 네가 이치에 맞는 도리를 설명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두지 않겠다."

윤권이 말했다.

"소인의 일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레바퀴를 짤 때 조금 크게 깎으면 뾰뻑하여 들어가지 않고, 조금 많이 깎으면 험하여 단단하지 못합니다. 험하지도 뾰뻑하지도 않게 알맞게 하는 재주는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깊은 이치는 바로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소인은 그것을 소인의 자식에게도 가르쳐 줄 수 없고 자식 또한 배울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실패를 하고 성공을 하면서 터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읽으시는 것을 옛사람의 알맹이가 아닌 겹집이라 말 한 것입니다."

아무리 솜씨가 뛰어나고 소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묘한 기술을 그대로 완전하게 재현하기란 정말 힘든 일이다. 몇 백 년 전 고려청자의 그 신비스런 색을 과학이 발달한 오늘에도 그대로 재현하지 못하는 것도 색만 흉내 내려고 했지 진즉 그 이치나 도리 그리고 그 장인의 정신을 밝히는 데는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번역문학가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황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bns4075@korea.kr

반사경 설치 건의

감만2동 동사무소 맞은편 가로등에 반사경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한다. 이곳은 외대 방향으로 내려오는 차와 골목에서 내려오는 차가 서로 확인하지 수 없어 가끔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사경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가로등에 전선 등로라고 표기된 표지판 밑에 부착하면 될 것 같다.

해당 부서에서 현장을 찾아 실태를 파악해 주면 좋겠다. 크게 문제가 안된다면 차량안전 운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반사경을 꼭 설치해 줄 것을 기대한다.

정중희(우암1동)

구정 부근 주차단속을

남구청 부근 불법주차 된 차량이 많아 주차단속을 건의한다. 첫째로 동성하이타운에서 남구청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 대rob면을 통과하는 부분 신평 옆에 불법주차 된 차량들

경이 발생할 수 있어, 셔틀버스 안내표지판 설치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셔틀버스 정차지점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남구신문 및 전단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김형호>

에너지절약에 최선을

가로등 소등시간을 앞당기자는 우정별씨의 건의에 답변 드립니다. 현재 도로의 조명시설(가로등, 보안등)의 관리는 관할 자치구에서 유관기관과 있으며, 가로등·보안등의 점멸방식은 계절별 변화에 따른

년중 일출·일몰시간을 자동으로 추적하여 입력된 데이터(시민 바람시간)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점·소등(ON-OFF) 되게 제어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공공용이 아닌 아파트단지 내 가로등, 개인 조명등)이 소유하고 있는 가로등 시설은 개인이 시설을 보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에너지절약에 적극 동참하도록 아파트관리사무소나 반상회 때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매주 순찰점검 하여 고장 및 점·소등 시간이 맞지 않는 조명 시설은 수리·보완토록 하여 에너지절약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김중수>

■ 나의 생각

새마을운동 불 지피자



조덕제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세계 10대 대국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신과 의식도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넘어야 할 장에도 크고 우리의 성장이 빠른수록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이웃사촌까지도 등을 돌리는 각박한 현실 속에 근면·자조·협동정신이 새로 위진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새마을을 만드세~"

1970년대 새마을운동 노래 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 메아리치던 그 시절이 지금도 귓가에 정경한데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잊혀 가는 마을과 정신이 너무 아쉽다.

다시 한 번 새마을정신을 재확인 하여 국민들의 의식 속에 새마을운동 정신과 더불어 앞으

로 4만불, 5만불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국민의 품격을 더욱더 높이는 정신운동과 살맛나는 선진국민의 공동체 정신 운동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되는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지극히곳한 보릿고개 뼈까지도 지린 배고픔 풀었, 풀뿌리 객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 시절을 이겨낸 새마을 정신 이 시대에도 아직 진실로 남아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창한 새마을운동은 우리 사회의 근대화와 현대화의 주체였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새마을운동은 전 세계에 알려져 개발도상국의 많은 나라들이 새마을 연수를 다녀가고 벤치마킹하여 지금도 아프리카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청년회가 조국 근대화 사업에 지금도 앞장서고 있고 근검절약 운동으로 마을마다 마을금고를 설립하여 10원, 20원을 모아 오늘날 제2금융권 1위 자리로 우뚝서 자산규모 100조를 달성하여 서민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듯이 새마을 정신 운동을 다시 한 번 국민의 정신 운동으로 활성화하여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운동이 되었으면 한다.

전 구의원·대연6동

산따라 물 따라

산행을 떠나요



<2011. 7.>

구분	산악회	산행일자(요일)	산행장소	연락처
대연동	산정산악회	10(일)	지리산 둘레길 1코스	010-9301-9780
	대삼산악회	10(일)	경북 포항 동대산	010-9979-0702
	유연산악회	17(일)	문경 운발산 남골	016-553-2075
	약천산악회	20(수)	지리산 백무동계곡	010-4655-4370
	대오산우회	10(일)	영덕 팔각산	018-677-6165
	연포산악회	10(일)	울진 불령계곡	010-5108-4777
용호동	청암산악회	14(목)	구미 금오산	010-6601-5929
	신여산산악회	3(일)	단양 도솔봉 가래골	018-523-8529
	용호산악회	24(일)	거창 의상봉	011-848-0911
	금강산악회	3(일)	전북 완주 대둔산	011-865-9051
	제일산악회	3(일)	청도 학삼이골	011-594-4192
	산이돌아산악회	24(일)	김천 수도산	010-9939-9921
용당동	한마음산악회	10(일)	밀양 주암 계곡	010-2567-7885
	여명산악회	3(일)	경북 울진 용봉산 용소골	010-3554-4392
	산수정산악회	17(일)	지리산 칠선계곡	011-9309-8446
	산사랑산악회	19(화)	지리산 칠선계곡	010-2552-4236
	문화산악회	24(일)	경북 청도 문복산	016-564-8882
	용마산악회	10(일)	의령 미타산	018-565-0004
감만동	홍곡산악회	10(일)	남덕유 월성계곡	011-586-7058
	글로벌산악회	17(일)	지리산 신평골	010-8287-1192
	녹색산악회	24(일)	지리산 백무동 계곡	011-9315-6431
	우일산악회	3(일)	함양 계관산 북릉	010-6666-3577
	한솔산악회	10(일)	함양 영취산 부전계곡	010-9620-2874
	자유산악회	24(일)	지리산 칠선계곡	011-9321-6363
우암동	우남산악회	17(일)	전남 곡성 동악산	010-7520-6666
	우암산악회	24(일)	하동 대성골	010-3889-2746
	문현2산악회	10(일)	지리산 칠선계곡	016-570-0539
	문현산우회	10(일)	하동 쌍계사 불일폭포	011-831-5469

7월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7월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세율 : 사업소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업소 500원)
- 신고 및 납부 기간 : 2011. 7. 1. ~ 7. 31.
- 납부방법 : 구정 세무2과에 신고 후 납부, 인터넷 전자신고납부
- 문의 : 남구청 세무2과(☎607-4252)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Cyber지방세청 전자납부 (http://etax.busan.go.kr)
- 납부기간 : 2011. 6. 16~6. 30.
- 납부방법 : 각 금융기관, 인터넷, 지방세납부계좌이체
- 문의 : 남구청 세무2과(☎607-4211~4)

2011년도 제2차 지역공동체(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11. 6. 23~6. 30(6월간)
- 사업기간 : 2011. 6월~11월(4개월)
- 모집인원 : 남구청 전체 총 64명 (지역공동체 52명, 청년일자리 12명)
- 접수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문의 : 남구청 주민복지과(☎607-4291~3), 동주민센터

풍수해 보험 가입으로 재산에 대비 합시다!!

- 전체보험료의 55~62%는 정부에서 지원 38~45%만 주민이 부담합니다.
- 대상시설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대상지역 : 전국어디서나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 보험기간 : 1년 월척
- 판매보험사 :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 가입인원 : 남구청 재난안전과(☎607-4644) 동주민센터, 판매보험사

■詩 가 있는 풍경

6월이 오면



김달현

남구문인회 회장

6월이 오면
통곡을 해봐도
맛을 쳐 봐도
맛지 못할 그날
삼천리 금수강산은
빛났으니 물들었다

봄집 이고 지고
피난 길 오르던 날
산천도 하늘도 물었다
포성이 멎은지
반세기 지난 오늘
산천도 변하고
사람들도 바뀌었거늘
155마일 철책 선은
지금도 변함없이
조국 통일엔
언제나 올런지...

한맺힌 이산가족
부르다가 부르다가
망부석이 되었다네
그까지 이남이 뭐 길래
이젠 훌쩍 넘어
민족의 한 풀어보자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인 李 福 熙 / 편집주간 河 仁 相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37-7373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ngj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밀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